

An aerial photograph of a densely populated urban area, likely Seoul, South Korea. The image shows a complex network of roads, buildings, and green spaces. A prominent river flows through the city, and a large bridge spans across it. The overall scene is a vibrant, multi-colored mosaic of urban development.

소문의 진상

프롤로그	3
사업 소개	5
함께한 사람들	6
프로그램 일정	8
‘진상進上: 앎적인 존재’ 유니폼 리폼	10
지역 기반 기획의 심화 멘토링	14
퍼포먼스 기반 기획의 심화 멘토링	19
함께, 지역 리서치 - 신길·대림	30
함께, 지역 리서치 - 여의도	32
소문, 연구와 창작	34
전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46
작업 소개	48
전시 오프닝	54
에필로그	56

‘소문의 진상’은 문화도시 영등포 ‘YDP크리에이터 이웃문화대사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소문이라는 주제로 지역과 자기 서사를 엮어 나가는 것이 프로그램 애초의 계획이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기탐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기획을 하고 싶은지, 이 기획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한 내에 기획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어떤 기획을 만들어내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소문’이라는 주제의 의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순간에도 ‘영등포이웃문화대사’라는 제도의 의무와 책임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바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소문의 진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주어진 자유를 불편해하고, 배우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을 기대했다는 피드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그저 낯선 이들과 모여 자기 삶의 서사를 나누는 이 평범하고도 드문 기회와 시간을 마음껏 누리길 바랐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술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의 특징은 이미 기획의 경험을 가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제도가 원하는 기획이라는 틀거리 안에 어떤 이슈화된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다가 과부하에 걸리면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전제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문화 예술을 소외된 지역의 이웃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에서 연구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기획의 어려움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공공의 자리에 기획이라는 프레임으로 내어놓을 때에는 누구의 이야기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이야기나 경험을 전달하는 데만 국한되어서 기획을 하게 되면 함께 하게 될 이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서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기획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일은 바쁜 일상 가운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고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의 진상’은 참여자들이 점차 서로 공유하는 생활의 장면과 경험 속에서 자신에 대한 단서들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구성해 나가면서 소통의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과정 내내 끊임없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와 매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견해 결과물을 만들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지만 나를 찾는 방법과 과정을 부대껴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과 기획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즐겁다는 유쾌함,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인 사람까지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묶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한 과정에서 참여자들 저마다의 성향이 묻어났습니다. 모두 다 다른 성향과 상황, 욕구가 전시로 마무리되는 이 여정에서 참여자들은 결국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했고, 하기 싫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봤습니다.

‘소문의 진상’이라는 과정에서 참여자 개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빈틈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 빈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활기를 만들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빈틈에 관한 감각은 일상에 치여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 책은 '소문의 진상'에서 참여자들이 마주했던 빈틈의 순간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을 살뜰하게 살펴보기 위해 동행했던 일, 영감을 받았던 강연들, 어려웠던 순간들, 함께 주고받은 생각과 대화, 소감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영등포의 소문을 찾으려고 했던 목표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에 대해 곱씹어보던 그 여정입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났었고, 또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타인과 나에 대해 나누었었는지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매개실천연구소

사업 소개

‘소문의 진상’은 대림, 문래, 여의도, 신길 등 다양한 영등포 지역의 삶을 발견 및 교류할 수 있는 이웃문화대사로서의 시민활동가를 키우고, 시민활동가(이웃문화대사)의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24.08.20 ~11.12 / 매주 화 10:00~13:00
장소 | 술술센터 및 영등포구 일대

기획 노트

소문은 본래 다성의 합창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떤 사건이나 서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사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렇게 구전된 이야기들은 어느사이 본질과는 무관하거나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로 각색된다.

팩트에서 자유스러운 것이 또한 소문이다. 소문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상을 밝힐 겨를도 없이 세상에 울려 퍼진다. 입에서 입을 통하는 동안의 번역과 오역을 더 깊이 추적하다 보면 진상의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소문의 진상’은 이런 소문을 오가며 산책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참여자들은 지역을 산책하면서 눈과 귀와 손과 코, 입으로 지역을 읽고 번역하는 사람들이다. ‘진상真相을 읽는 사람들의 진상進上짓’은 영등포 지역의 이웃문화 대사 자기주도 학습과정 프로그램의 핵심 비전이다.

본래 누구에게나 소문(서사)이 있고 고유성 있는 각자의 이야기는 힘이 세다. 그 고유성은 올곧게 삶을 살아온 시민들의 말과 의미에서 파생되는 시민력이자 견고하고 단단하게 삶을 살아낸 시민들의 미학이다.

함께한 사람들



참여자 권지연



참여자 김나영



참여자 김지수



참여자 이가영



참여자 정미환



참여자 한명주



참여자 최경한



동행자 이아람



동행자 이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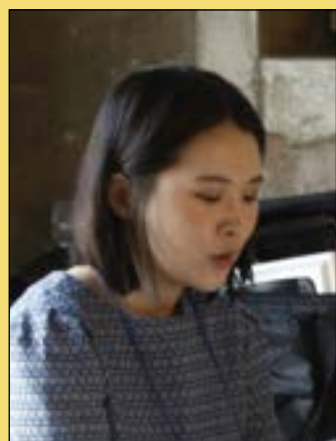
무늬만뮤지엄 관장 김월식



영등포문화도시센터 김해송



웁쓰양 컴퍼니 웁쓰양



문화매개실천연구소 지가영

프로그램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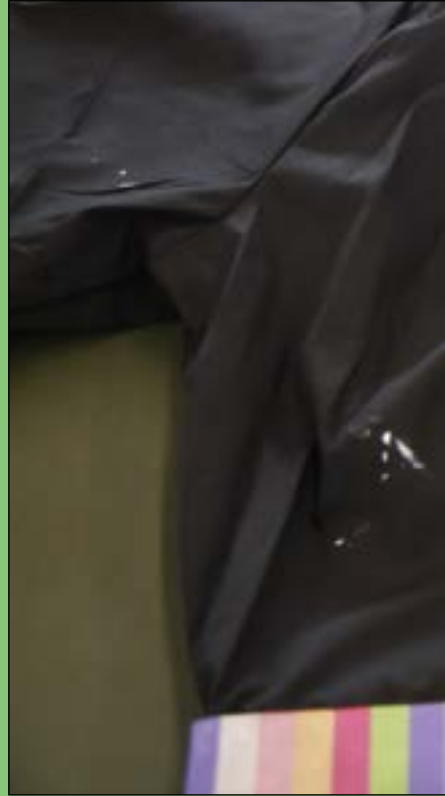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1	8/20(화)	오리엔테이션	1) 사업소개 및 프로그램 진행방식 소개 2) 참여자 소개
2	8/27(화)		1) 리서치 지역 및 방법론 정하기 2) '진상進上: 앓적인 존재' 유니폼 리폼
3	9/3(화)	챕터1 소문 읽기	함께, 지역 리서치 - 신길·대림
4	9/10(화)		함께, 지역 리서치 - 여의도
5	9/24(화)	특강	김월식, 지역 기반 기획의 심화 멘토링
6	10/1(화)	특강	윙쓰양, 퍼포먼스 기반 기획의 심화 멘토링

회차	일자		프로그램 내용
7	10/8(화)		참여자 지역 인터뷰 발표
8	10/15(화)	챕터2 소문 번역	번역: 모아진 소문 연구/창작
9	10/22(화)		오역: 만들어진 소문 연구/창작
10	10/29(화)		진상真相: 퍼지는 소문 연구/창작 1
11	11/5(화)		진상真相: 퍼지는 소문 연구/창작 2
12	11/13(수)	챕터3 소문 퍼트리기	전시 오픈닝
13	11/14(목)		전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상進上: 얇적인 존재’ 유니폼 리폼









지역 기반 기획의 심화 멘토링

우뇌를 열고 육감을 통해 나의 관점 확인하기



김월식 | 무늬만뮤지엄 관장

‘소문의 진상’

안녕하세요. 김월식입니다.

저는 술술센터에서 또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토끼 굴에 빠진 예술가 기획한 사람이고요.

무늬만 커뮤니티라는 콜렉티브 그룹을 하고 있어요.

콜렉티브가 뭐냐면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일종의 커뮤니티죠. 공동체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늬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무늬만이라는 단어가 수사한 것은 약간 진짜 같지 않은, 가벼운 껍데기만 누르는, 껍데기만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진짜 싫어. 누가 이렇게 협업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남들은 다 보면 커뮤니티 아티스트라니 아이러니하죠.

제가 사실은 오피셜하게 인사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2006년도에 대한민국 문화부 정책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제가 다 했는데 홀라당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완전히 망한 프로젝트 인덕원 프로젝트 감독 이렇게 기사를 써서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받아서 어디 가면 한국 대표 보수언론 조선일보가 선정한 가장 실패한 공공 예술 프로젝트 운영했다고 소개해요.

혹시 안양의 초입에 인덕원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오래 살고 있는 인덕원이라는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어요. 그 인덕원에서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했는데, 주민한테 진짜 무지하게 많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 선배들이 전부 다 너 외롭고 고독한 이 공황장애는 10년은 걸린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다시 마을과 공동체가 이런 걸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만든 게 무늬만 커뮤니티.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프로젝트가 잘 돼 희한하죠? 이다음부터 이게 뭐냐, 왜 그럴까 했더니 목적성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잘하겠다는 목적성이, 이 목적성이 사람이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사람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목적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하게 하고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의 진상이요. 저는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해요. 놀이 같이, 즐거운 소문의 진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록이나 이 리서치에서 이웃을 발굴하고 그를 찾아서 탐색하고 기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괏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놀이같이 즐거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학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학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고고학자가 아니니까. 그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들 중 시인이나 예술가들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은 시인이 될 수 있고요. 이 시인은 예술가의 삶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릎을 치고 나는 이제 시인이자 시민이 돼야겠구나.



자기 삶을 올곧게 단단하게 살아내고 있는 한 명의 시민. 가령 이 문래동의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들 계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을 압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시고, 산업화를 이끌고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게 시민이에요.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삶의 가치가 대통령의 삶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할 때 문화민주주의라는 게 보여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소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소문이라는 게 뭐냐? 다성의 합창이죠. 소문이라는 건. 여러 명이 목소리를 내면 패턴에 가까워지고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누구나 별 부담이 되지 않는. 듣다가 이쪽으로 건너갈 때 약간 왜곡해도 되고요. 소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자유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소문의 진상을 기획하면서 회의를 할 때 영등포에 있는 정말 많은 수십만 개의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게 텍스트로 전달돼도 되고, 좀 창의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제3자의 관찰자에 의해서 왜곡해도 되고요. 모든 다큐멘터리가 팩트는 아니에요. 감독의 시선에 의해서 재각색된 어떤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등포에는 다 각자의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서사는 뭘까? 그 이야기의 힘은 뭘까? 우리가 이것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이 소문의 진상의 가장 큰 핵심이죠.

관찰과 사색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과 사색이에요. 이른바 보는 법, “나는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어떻게 보느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먹고 싸고 자고 하면서 이미 내 삶의 태도에서 이미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약간 솔직하게 커밍아웃 하시면 돼요. 누가 영등포를 보면 너무 활기찬 곳인데 누가 영등포를 보면 너무 섹시하고 위험한 곳이다. 그럴 수 있죠. 그걸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누가 영등포를 보면

무지하게 느끼하다고 한다면 이상하죠? 근데 지역이 씹쓸해, 즐거워 이런 것들은 그냥 흔한 감정이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태도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하는 거죠.



우리는 뭘로 보죠? 뭘로 봐요? 눈으로? 우선, 시각적 관점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시각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 시각적 관점에 제일 부합한 매체는 뭐죠? 영화, 쉽게 봐서 카메라. 카메라는 누가 찍어도 다 똑같아 그렇죠. 물론 작가들이 찍으면 그것도 다르게 찍어요. 똑같이

이거 찍었는데, 이렇게 발칙할 수가 있나? 그게 작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면 되게 비슷하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은 정확한 합리적 판단을 하래요. 근데 눈을 보면 신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눈으로 보면 다 뭐예요? 똑같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만 보면 영등포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가 어떤 신문이 와서 찍어도 비슷하고 세계 어떤 관광객이 와서 이걸 찍어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기록을 하는데 같은 것을 말해요. 같은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좀 다른 걸로 보자는 거예요.

먹어 보는, 미각적 관점. 만져 보는, 촉각.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느껴보는, 식스센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식스센스 여섯 번째 감각. 이렇게 부르는 이게 굉장히 요즘 더 중요하죠. 산업화에, 증권가에, 국회 정치를 끌어가고, 너무 복잡한 이 영등포라는 지역을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고유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건 뭘로 봐야 되냐면 물론 눈도 중요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육감을 받으면서 봐야 된다. 다르게 감각을 하는 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감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비로소 생각하게 하는 거,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촉각적으로 관찰하면 더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 부산 영도에서 영도를 총 아카이브 하는 이 소문의 진상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했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영도를 돌아다니면서 영도에서 중요한, 자기자신하고 인연이 있는 장소들을 직접 만지면서 다녔어요. 촉각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과 함께 좀 봅시다. 우리 영등포를 미각적으로 관찰한다면, 거기 맛있는 식당 많던데 가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럼 안 돼요. 그건 맛집 투어지, 그게 무슨 영등포 관찰이에요. 영등포 햇바닥으로 다 훑고 다녀야 해요. 그렇게까지 크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좌뇌와 우뇌

좌뇌와 우뇌. 좌뇌가 관장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시각적인 영향, 합리적, 논리적, 순차적, 이성적 이게 다 좌뇌가 시킨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조용해요? 왜 조용하세요? 좌뇌가 시키는 거죠. 좌뇌가 조용히 해. 낯선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 나 일단 들어줘야 돼. 그게 예의야.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우뇌 하는 건 뭐야? 여기서 '비'만 쓰는 느낌. 비시각적,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이성적, 이게 우뇌인거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리서치가 잘 안되는 건요. 이 리서치를 자꾸 좌뇌로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똑같은 거야. 시각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물론 좌뇌가 하는 역할도 중요하죠. 문헌 연구 이런 것들은 다 좌뇌로 해야 되죠. 팩트를 기록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감각, 창의, 감성 이런 걸 다 우뇌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뇌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감각적으로 보는 거, 육감으로 보는 거 이 문명화된, 문명화된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야생성, 이 야생성이 많아야 예술가가 되는데 되게 곤란한 거예요. 우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해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 우뇌에 자극을 줄 수 있다. 1980년에 뇌과학자들이나 일본의 예술가들은 이미 이것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의성을 만들고 이게 얼마나 개인의 고유성을 만들면서 고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무지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누구야? 우리 요즘 얘기하는 구조주의 대표하는 레비 스트로스 이런 사람들은 <야생의 사고>, <슬픈 열대> 이런데에 다 써놨어.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몸을 쓰면 우뇌가 얼마나 좋아지고, 이 우뇌를 활성화시키면 그 삶의 감각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중요해지지는지를 강조했어요. 일단 레퍼런스를 딱 찾으려면 일단 나가셔야 돼요. 걷고 천천히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좀 다른 감각으로 보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보고 저 건물이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고 무엇이든 해보시면 돼요. 조금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데 자꾸 뭘 하지? 이런 게 생기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무엇과 왜'라는 질문. 그리고 이게 지역, 영등포하고 인과성이 없으면 이게 설정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영등포에 와서, 영등포에서 어쨌든 소문이라는 그 이야기를 수집하거나 모집하고, 그 소문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 비물질, 다물질 다 포함해요.

그다음에 사실은 소문, 이야기지만, 가령, 누구나 햄버거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누구와 햄버거를 먹는데 그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저한테 성찰이 이루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 아침밥 먹는 걸 누구한테 이슈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얘기하면 그 아침밥이 일생의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밥을 찍으면 다 똑같은 밥이잖아.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고유성을 거기 입히면요. 그 밥은 완전히 다른 밥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접근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 즈음. 중간 정도에 왔을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을까? 내가 뭘 하고 싶을까?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죠. 나는 왜 할까? 무엇을 할까? 사실 이 소문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소문은 정답이 없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마치 수학 공부처럼 수업처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소문에는 자유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가 통이어도 되고 토막이어도 되고 이 토막을 아주 갈아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등포에 관해서 한번 리서치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에 가면 저는 심리적으로 정치인들의 비린내가 나요. 그럼, 정치인들의 비린내에 대해서. 증권가에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저지른 이 증권가의 냄새. 마치 갓 인쇄된 A4지의 뽀뽀한 냄새 같으면서도 바로 상자를 뜯어낸 새 컴퓨터에서 나듯이, 뭔가 이렇게 그런 용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신길동은 신길동대로, 대림동은 대림동대로, 문래동은 문래동대로. 지금 이렇게 봤는데 여기 사장님들 일하시면서 먼지 같은 거 마시면 안 되니까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하나씩 버리실 거 아니야. 그 마스크만 수거해도 어떤 사람이 8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 입을 맞고 있었던 그 마스크라는 그 서사. 수많은 마스크들. 그 수많은 문래동의 먼지를 필터링했던 그 마스크들에 서사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보면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소문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물질, 비물질, 상황, 사건, 서사, 이야기 이런 게 다 있다고 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뇌를 열고 육감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확인해 보라. 그래서 암묵지, 암묵지에 있는 나의 야생성을 활용해서 한번 보세요. 한 마리 늑대의 심정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우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뭘 했나 기억하지 말고,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움직이시고, 춤도 좀 추시고, 그러면 확실히 나의 상태를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퍼포먼스 기반 기획의 심화 멘토링

도시 놀이 프로젝트



웁쓰양 | 시각예술가

제가 2013년부터 해왔던 놀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일반적인 문화 기획자분들이랑 살짝 좀 다른 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 예술가거든요. 시각 예술이라고 하면 그림도 그리고 설치 작업도 하고 요즘 현대 미술 안에서 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조금 치밀하게 스튜디오 밖에 작업실 밖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장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노동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베이스로 한 사람이 만든 기획은 좀 뭐가 다른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 놀이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른이 되서는 친구들을 만나면 돈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서 약속을 잡으면 카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동네 벤치 의자에서 가까운 친구들은 만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만나서 논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릴 때 저만해도 그래도 골목길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연히 용돈도 별로 없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었는데 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다가 도시라는 곳을 거대한 놀이터라고 한번 상상을 하고 거기서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예술적으로 실험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도시 놀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폐허의 콜렉션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폐허의 콜렉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퍼포먼스 하는 걸 좀 해봤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재래시장에 가서 막 그림도 팔아보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혼자 나가서 수행하는 이런 거였다면 처음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퍼포먼스 기획을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지만 2013년에는 아현동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이때는 여기가 이미 막 재개발이 되려고 원주민들은 다 떠나고 아시죠? 재개발 지역의 그 풍경 유리창 깨져 있고 벽도 허물어져 있고 빨간색 페인트 있고 딱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제 눈에는 전쟁 폐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개발 지역을 사실 처음 가게 됐고 우연한 계기로 가게 됐고 거기서 우연히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랑 약간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분쟁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 상황으로는 많이 느껴지는데 막상 이곳에 남아계신 분들은 동네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살고 있던 동네가, 마을이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마인드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돈이 되냐 안 되냐 보상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으로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전쟁 폐허와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전쟁 놀이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한 27명, 28명 정도 있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이분들한테 물감 폭탄이랑 물총을 나눠줬어요. 물총을 나눠주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날 양쪽 벽을 하얀색으로 다 칠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쟁놀이를 시작을 하면 서로의 진영의 벽을 향해서 물감 폭탄도 막 던지고 물총도 쓰고 하면서 일종의 전쟁놀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도 하고 물감 폭탄도 던지고 한 4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이런 벽들에 물감들이 쏟아지고 물이 뿌러지면서 일종의 수채화 같은 벽화 공동 작업이 이어지는 걸말로, 그러니까 전쟁 폐허에서 또 다른 전쟁을 한 이후에는 이제 뭔가 아름다운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프로젝트죠.

보기에는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하기까지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뭘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일단 눈앞에 보였던 곳이 그 경로당이었던 때문에 일단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1층에는 할머니들 방, 2층에는 할아버지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동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잘 몰라서 아까 등장하셨던 회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여기 골목길에서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여기 밑에 가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따로 받아야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안이 안 보이는 사무실 문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겁은 나죠. 왜냐면 뉴스에서 보면 다들 막 예민하고 갈등 상황 속에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거기가 2층인가 3층이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일단 다시 내려와 후퇴 그리고 나서 제가 약국에 가서 박카스 한 박스를 샀어요. 앞으로 제 이야기에 박카스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박카스 한 박스를 일단 사두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딱 이런 사무실이고 벽 쪽으로 이제 짙 검정색 책상들이 있고 시커먼 아저씨들이 인상 팍팍 쓰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얼음이 됩니다. 진짜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일제히 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때 저는 빠르게 그냥 스캔을 해요. 인상 좋은 아저씨를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인상 좋은 아저씨한테 잠깐 가서 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여기서 뭘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박카스를 딱 책상에 두는 거죠. 이제 박카스 뇌물을 한 번 드렸으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 눈에는 제가 키도 조그맣고 여자애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깐 크게 거부감은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여기 벽 앞에 있는 어디서 골목길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 분은 혼자 알아서 그림 그린다고? 그래 근데 이거 없어질 건데 뭐하러 그리나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작품 컨셉이 그런 겁니다라고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고 그분이 그래 와서 그러라고 하고 일단 그날은 거기까지만 허락을 받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이 난장판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벽이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좀 그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친구들? 그러면 좀 조용하게 그리고 가. 조용하게 조용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후퇴.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갔어요. 이제 좀 친해졌어. 세 번쯤 봤잖아요. 약간 '왜 저거 자꾸 오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날도 더운데 친구들이랑 그림만 그리려고 하니까... 이날 제가 스피커 큰 거를 어렵게 들고 가서 음악을 광항 틀면서 했거든요. 전쟁을 진짜 하려면 목소리도 내면서 약간 사기를 돋우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는 음악들을 플레이 리스트에 잔뜩 집어넣고 이걸 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더운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려니까 좀 심심해서 음악도 좀 틀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는 '약간 선 넘네?' 이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더 겁이 나죠. 그분이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그거는 여기 말고 그 위에 상급 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거기서 최종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주소를 알려주세요. 근데 조그마한 또 어디 골목길에 사무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임시 사무실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가서 어느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여기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악도 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더라라고 했더니 거기 사무실에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놀라시면서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쭙봤더니 이때 당시 여기가 어쨌든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당시에 뉴스 촬영을 취재해서 온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반대를 하고, 영화감독이 영화 촬영 장소로 쓰겠다고 찾아왔을 때에도 허가를 못 받고 다 그렇게 허가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니가 여기 와서 지금 음악을 틀고 뭘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다고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네”라고 답했죠. 그래서 결국 최종 날짜랑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난장판을 일으킬 거라는 건 아마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뭘 하겠다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린 상태로 최종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정말 저는 약간 이제 뭘듯이 너무 기뻐서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터 촬영도 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총으로 하잖아요.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상태가 전기 수도 다 단수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물총 놀이를 40분 동안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어디서 났냐면 아까 그 경로당 있잖아요. 제가 주민대책위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경로당을 매번 갔어요. 가서 할아버지 어께도 주물러 드리고 말씀도 좀 많이 나누고 동네 얘기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치안이 어떻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집은 아직 보상을 못 받아서 힘들고, 자잘자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회장님이라 많이 친해진 거죠. 회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제 그분께서는 이렇게 되는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재밌는 걸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하시면서 물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여기 물 갖다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러가지고 제가 아주 긴 호스를 산 다음에 경로당 1층에 있던 화장실에 호스를 짝 연결해서 골목길 초기까지 조금 당긴 다음에 거기에 물을 싹 받습니다. 그래서 물 조달도 원활하게 신나게 해서 결국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기획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 초반에는 거의 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림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걸 처음부터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제가 그걸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약간 쫓보였기 때문에 이걸 다 쏟아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천천히 얘기를 이제 설득을 시작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길긴 했지만 근데 그런 천천히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도 못 오고 영화감독도 못 오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좀 시간을 천천히 두고 다가갔었던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는 어릴 때 아현동에서 실제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여자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도 있지만 이것을 작품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활용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을 때에는 일상적인 공간이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골목길에 아이들이 다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능을 상실한 거죠.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실제 일상적인 기능이 존재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골목길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음악도 쿵쿵 틀고 소리도 막 질렀죠. 남의 집 담을 타면 안 되지만, 담도 막 타 넘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담을 타고 남의 집에 막 건너가서 거기서 물감 폭탄을 막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탈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골목길이라는 인식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랄까 해방감, 일탈 같은 것들을 이제 더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통쾌함이 없죠. 근데 기능이 상실된 곳을 점거를 해서 거기에서 평상시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의 짜릿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약간 음악도 있었고 자기들이 뭔가 용병처럼 참여하고 그래서 살짝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짧게 줄여서 이제 장소 특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패션 스타워즈



신촌 연세로에 이렇게 옷더미들을 쪽 깔고 여기 지금 관객들이 와 있는데 이렇게 옷더미들을 쪽 깔고 참여자들이 옷더미 사이에서 옷들을 막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고집어내요. 이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리폼을 할 수 있어요. 리폼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멀쩡한 옷을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이제 이런 리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옷 입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문 메이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모델 메이크업 같은 메이크업을 실제로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얼굴도 메이크업도 모델처럼 한 다음에 참여자분들이 모델처럼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서 해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옷들을 양쪽으로 짝 치워가지고 참여자들이 캣워크를 하면서 자기 옷들을 모델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서도 또 우승자를 가려서 상을 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명품 옷이나 브랜드들, 직장인들이 월급을 다 털어서 사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돈 모아서 옷 하나 사고 그런 것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 수단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무언가를 입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그냥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 입는다는 것이 언젠가부터는 약간 권력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원래 옷 입기 방식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 옷장 막 뒤져가지고 엄마 옷 괜히 꺼내 입어보기도 하고 엄마 속옷도 괜히 한번 걸쳐보기도 하고 뭔가 힐도 한번 신어보기도 하고 약간 그냥 자기만 즐기고 만족하는 그런 옷 입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좀 그런 것들에서 해방이 돼서 우주 최강의 옷 입기를 해보는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사실 기획했던 의도는 설치 면에서의 의도는 그렇게 바닥에 옷을 까는 게 아니라 원래는 건물 2층 높이로 산을 만들게 된 거죠. 옷 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거기서 막 옷을 끄집어내고 현장에서 리폼을 하고 옷 입기를 하는 그런 좀 비주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 산은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 컬러풀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패션이 권력이 됐네. 명품 어찌고 좀 그러네. 그래서 이 옷 더미는 컬러풀하면서도 플러스 약간 고가의 옷이어야 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고가의 옷 브랜드가 길바닥에 옷을 쌓아놓고 하는 걸 허락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알록달록하고 조금 비싼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바로 떠올랐던 게 베네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네통 여기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베네통 코리아 본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제안도 해봤지만 그건 잘되지 않았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조금 노선을 바꿔서 그래서 생각한 게 '아름다운 가게'였어요. 거기서는 그 수천 벌의 옷을 내가 협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 연락을 했고 제가 기획에 대한 것도 설명도 드리고 메일도 했더니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해가지고 미팅을 가고 실제로 옷을 제가 협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막상 아름다운 가게 창고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냥 꿈꾸던 옷 산이 진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거 그대로 떠서 신촌에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사실 그게 2층 높이의 옷 산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저의 상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꾼 게 이거를 일종의 파레트처럼 생각을 해서 약간 옷을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깔별로 짜는 거라고 이제 좀 기획을 바꾼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색깔들을 구별을 해서 그 물감 하듯이 이렇게 짹짹 해서 옷더미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 와서 보실 줄은 몰랐어요. 꽤 많은 분들이 오래 앉아서 이걸 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음악도 나오기도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걸쳐 입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는 것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막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놀이하는 사람이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는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랑 정장을 입을 때랑 몸가짐이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근데 놀이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릴 때 하다못해 우리가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것도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너는 아빠고 난 엄마야. 아니면 넌 의사고 나는 간호사야 너는 환자야 이런 세계관의 면도 있고 세계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주 최강의 패셔니스타를 모집한다는 세계관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참여자들이 한 명씩 컷워크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옷을 굉장히 과장하게 입고 나니까 다들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약간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컷워크를 하는 사람이 계속 춤을 추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무대 뒤에서 어떻게 수줍어 이러다가 한 분이 음악이 탁 나오고 큐하니까 갑자기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랬더니 다들 그 분위기가 확 동화가 돼서 두 번째 사람도 비틀비틀 나오고 세 번째는 덩블링 하면서 나오고 누구는 뒤로 나오고 이러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다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분위기가 굉장히 밀도가 높았던 행사였어요.

뭔가 사람들을 끌어와서 어떤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약간 말장난 같은 가지고 하잖아요. 동어 반복 같은 거,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제목들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짓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딱 제목을 정했을 때 뻘하면 또 안 돼 예를 들어 개네 뭐 하겠네 갔더니 정말 그대로 해 그럼 재미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문턱도 낮추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제목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목을 짓는 것에는 사실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못 써요. 가장 쉬운 건 이거죠. 그냥 굉장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신조 단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기획 제목으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기들만 알아듣는 무슨 줄임말들을 만들어서 제목을 만든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놓고 이 뜻도 담고 저 뜻도 담았으니까 정말 좋은 제목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밑에 설명이 쓰여있어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찌라고 이러면서 아무런 설득이 안 돼 계기가 없어요.

패션 스타워즈도 맨 처음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제목은 '내 멋대로 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국 드라마 제목을 차용해서 쓴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패션 스타워즈라는 말을 만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막상 제목을 말하면 패션 스타워즈구나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결과로서 봤을 때는 쉽지만 말을 만들고 의미를 담고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단어를 만들기까지에는 꽤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멍때리기 대회



그림을 그리는 2013년쯤에 사실 제가 번아웃이 좀 크게 왔어요. 그래서 작업실에 가서도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처음에는 개인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오늘도 하루도 못 하고 집에 가네. 좀 쓸쓸하네.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책을 하는 거죠. 예술적 원천이 이게 다야? 너가 이거밖에 없어? 엄청나게 자괴감과 있고 불안함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직업이 아티스트인데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좌절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업실에 가서 점심때쯤 되면은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김밥 같은 걸 사 먹곤 했었는데 김밥 사 먹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야 니가 뭘 했다고 밥이 넘어가 약간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그냥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점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어느 순간 다 터져요. 그럼 어떻게 그때 저는 어떻게 터뜨렸냐면 이게 다 내가 무계획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자. 계획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계획이 뭐냐면 생활 계획표가 이렇게 있다면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를 뭐라고 채웠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채웠어. 그랬더니 그다음 날부터 저는 작업실에 와서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고 보람 차요. 왜냐면 계획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오지 않은 첫날 꿀잠을 잤어요.

3.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작업실에 가면 배고플 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혼자 카페에 가서 심지어 디저트까지 챙겨서 먹고 집에 와도 죄책감은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느 날 또다시 불안감이 또 올라오고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죄책감이 생기지? 난 계획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작업실에서 집을 가는 지하철을 딱 탔는데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지하철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퇴근길인데 아직도 거러처랑 전화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장을 봐서 집에 가는 워킹맘도 있었고 전공 책 펴놓고 공부하는 대학생, 영어 단어 외우는 고등학생 모든 지하철 안에 제 눈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 사람들 때문에 불안했구나, 바쁘게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불안했구나 채네들을 멈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앞에 누가 갑자기 달리면 불안하죠 그래서 나도 뛰어요. 잘 모르지만 일단 뛰어가 내가 뛰면 내 뒤에 있는 사람도 같이 뛰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뛰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멈추라고 한다고 이게 멈춰지지 않거든요.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느꼈고 어쨌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도를 늦추고 싶어도 내 주변이 너무 빠르면 나는 내 느린 속도를 지킬 수 없어요. 사람들도 누군가한테는 저도 그 사람의 배경이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불안해질 바에야 한날한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그냥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주변을 다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재밌겠다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트에 멍 때리기 대회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근데 쓰고 나서 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멍 때리기 대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거 경쟁을 시킨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거 대회는 심박수도 재고 투표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남이 뭔가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더 쉬워 보여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라고 하잖아요. 바퀴를 만든 인류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위대한 발명까지 인류의 미디어 발명까지, 하지만 바퀴를 만들기까지 인류가 쏟아낸 수천만 명의 시간 바퀴가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어려운 뭔가가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만든 아웃풋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 대회 규칙을 만드는 데 사실 1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벌써 막히는 거죠. 근데 저는 멍 때리기 대회라는 이름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나 이런 대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못 했어요. 뭔가를 하겠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뭐야?라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이미 완벽하게 이제 하겠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동조는 일단 저한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고 일단 무조건 나는 이거를 대회로 만들겠다는 거에 많이 좀 빠져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멍 때리기대회 할 건데 이 멍 때리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계속 요새 고민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고민이 생길 때는 여러분 막 떠돌고 다니시면 돼요. 누군가가 힌트를 줘요. 그런 차에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멍 때리는 것도 어떤 에너지를 쓰는 거라면 정신 활동으로서 에너지를 쓰는 거라면 칼로리 같은 게 소모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칼로리는 아니지만 그분 말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무슨 짓을 했냐면 집 근처에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환자로 등록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원장실에 가서 문을 열고 정신과 의사님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마주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힘들어서 왔냐고 이제 물었죠. 저는 힘들어서 온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음흉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딱 앉자마자 선생님 저는 사실 아파서 온 게 아니구요. 저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어디서 전시도 했었고 어떤 전시도 했었고 이런 이런 활동도 했었고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걸 만들려고 해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라고 막 설명을 했더니 처음엔 저한테 약간 적극적으로 앉아 있다가 제가 막 그런 말을 떠드니까 의자를 약간 이렇게 뒤로 빼고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역대급 치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새 우리 병원에 그런 환자들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바쁜 건 미덕인 사회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화 시대 이전에.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신분사회였을 때는 충분히 높은 사람한테만 특별히 허락된 시간이 멈춰져 있는 시간, 아무것도 닿지 않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반대가 된 거죠. 바쁜 게 좋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우수한 사람이 어디까지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정점을 보여주고 싶었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비생산적인 시간은 사실 되게 귀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내용을 재미있게 하려는 거 한마디로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는 거는 수천 명이 오는 어떤 페스티벌이라든가 어떤 축제를 만드는 것은 저하고는 좀 결이

3.

다르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을 데리고 시행을 하는 게 목표고 때로는 그게 관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함께, 지역 리서치 - 신길·대림





함께, 지역 리서치 - 여의도





소문, 연구와 창작

1

권지연 : 지난주에 저희 전시 얘기에 이런 걸 했을 때 선생님께서 왜 꼭 우리가 이걸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도 기획이나 이런 걸 하면 당연히 무조건 누군가랑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오로지 내가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어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아요.

이지혜 :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시작한 걸 어떻게하면 기획으로 좁혀갈 수 있을까요? 그냥 결과를 위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거 말고 그걸로 갈 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조사와 모아진 소문? 소문을 모으는 방법이겠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획은 그렇게 탄탄한 어떤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경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베이스가 그냥 일종의 그냥 키워드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수집이라든지, 되게 견고하게 코프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야기면 사실 나중에 나온 그 결과도 되게 성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봐야 돼?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만일 그 베이스가 잘 되어있으면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이해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람쌤은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아람 :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편이긴 해요. 재미를 느끼려면 내가 뭘 해서 재미를 느끼는지 먼저 나를 알아야지 같이 보는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도 사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어떤 이야기의 토대는 나로 하여금 시작을 하는 편인데 저는 주로 많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지혜 : 아람 선생님한테 저희가 궁금한 건 아람선생님의 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작업이 어떤 게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막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세요?

이아람 : 약간의 에피소드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저는 가령, 하루 중에 갑자기 뭔가 확 스트레스받는 일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아이씨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욕을... 어디서 배웠어? 하면서부터 애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그 경로를 찾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때 누구랑 같이 있었을 때 그 욕을 배웠을까? 욕을 하게 된 환경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정말 그때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까? 라는 저만의 어떤 연극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거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럼 뭐가 필요했지? 개한테 어떤 감정이 필요했길래 이렇게 나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약간 가지치기로 뺏어나간 같거든요.

이지혜 : 그래서 약간 저도 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뭔가 생각을 계속하는 게 사실은 기획의 핵이죠. 코어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걸 약간 마인드맵 하는 것처럼 좀 뺏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세계가 열리는 것보다 이런 게 엄청 레이어가 되게 겹겹이 많이 쌓이면 이게 되게 풍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방금 아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는 단순해요. 엄마는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근데 애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기술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일 구술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마인드맵처럼 그려보기도 하고요.

기획에는 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들을 가져올 때는 이걸 왜 가져오는데 대한 기동이 있어야 해요. 이 기동이 세워지려면, 그 방법이 마인드맵과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별의별 생각이 필요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아무리 아카이빙된 걸 보더라도 본인의 무언가가 비어있으면 조립하는 방식밖엔 안돼요. 그래서 기획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기획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텅 비어 있어요.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그게 텅 비어있고요. 텅 빈 것들 천지예요. 그래서 저는 텅 안 빈 것만 찾으러 다니려고 엄청 노력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최고의 토픽이에요. ‘왜 진실해야 돼?’ 이 생각이 엄청 강해요. 진실한 걸 찾고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냥 텅 비어서 그냥 하면 안 돼?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왜 텅 비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권지연 :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제가 나중에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에 고민이 있긴 해요. 저는 어쨌거나 드라마나 영화는 상업을 위주로 했었고. 근데 상업이라고 해서 꼭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거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걸 요즘 고민을 하고 또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의 즐거움 내 주변에 그걸 위해 될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사람들이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바꾸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이지혜 :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그 사람이 세계를 보는 시선이 어떤가,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도구로 보고 있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다가가지? 어떻게 내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손으로 좀 쓰고 정리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2

김나영 : 저는 하고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기획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굉장히 공상같아요. 차라리 틀을 딱 정해주면 좋겠어요.

이지혜 : 당연하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오히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모순돼요. 전 하고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정답을 제시해주기를 원해요.

김나영 : 아니, 그게 아니고 차라리 자료수집 해주세요. 기획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될텐데...

이지혜 :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끌고 갈 수 없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기획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시간 분배를 해서 쓰세요는 안 돼요. 이 기획서 쓰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이거는 이거는 죽은 글이에요. 지금 눈과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살아있는 거고, 이 기획서에 적힌 글들은 끝났어요.

이 소문의 진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으로 기획이라는 걸 하실 때 어떻게 내 시간을 분배할 거냐, 이 기획이라는 걸 내가 앞으로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기획자로서의 내 발판을 마련할거냐 이런 거예요. 소문의 진상에 묶이지 말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소문의 진상이라는 과정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 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획을 할 때 기획자들은 친구가 필요해요. 저는 기획을 하거나 서문을 쓰거나 비평글을 쓰거나 하면 친구랑 무조건 만나서 술을 마셔요. 다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는데 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예산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들. 기획이 진행되지 않는 지점들에 관한 고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뭘 해 오시라 이런 방식은 이 기획과는 아예 맞지 않고요. 그거는 주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가 누구 기획자를 만들어요. 똑같은 입장이고,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로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영쌤의 기획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건 것 같아요. 남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감정을 표출해 보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김나영의 기획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나면, 요대로 써놓으면 김나영 이름을 이지혜로만 바꾸거나 최경한으로만 바꾸거나 김해송으로만 바꿔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김나영 : 그래서 계속해서 텅빈 거, 너의 것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건데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어렵다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지혜 :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감정 표출해보는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좋죠. 뭔가 자유를 표출해 보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죠. 왜 그러면 그 참여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세요?

김나영 : 이 경험은 저도 안 해본 거거든요. 제가 해보고 싶은 그런 하나의 경험이에요.

이지혜 : 그럼 나영 쌤이 하시면 돼요. 나영 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했으면 나영 쌤이 하면 돼요. 근데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감정을 표출해 보는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나영 : 10대, 20대, 30대, 40대를 넘어오면서 그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저보다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각자의 연령대에서 그냥 우여곡절 다 많이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오로지 그냥 한 공간에서 그냥 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해보고 싶은 실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끄고서 그냥 정말 오감 신경에만 집중을 해서 손끝부터 움직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너무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조금 더 나만의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지가영 : 저는 사회자가 있고 타인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공간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감정을 표출한다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을뿐더러 그럴 수 있는 종류의 그러니까 그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렇게 이끈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가능해질 것 같지 않아요.

김나영 : 그런 사람은 여기에 안 오겠죠.

지가영 : 그게 이끌어진다든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라는 홍보를 보고 갔을지언정 그게 이끌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인데. 선생님께서 그걸 경험하셨다고 이렇게 불을 끄고 하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될까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체험형 전시를 마련하면 그게 될 거야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이지혜 : 지금 방금 가영 씨가 얘기한 게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가 울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하라 그래, 그건 이렇게 해. 그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놔 그러면은요. 평가가 난리가 나요. 민원도 난리 나고요. 근데 뭐냐면 그거를 유연하게 다 풀어놓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기획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무슨 말이나면 내가 왜 분출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남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지 감정을 표출하는 게

좋았는지, 내가 그 연기 연습할 때 처음에 그 경험을 했을 때 느꼈던 그 쾌감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어떤 사람을 초대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고요. 내가 했을 때 좋은 걸 남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나는 그게 좋아서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죠? 그럼 그걸 적어요. 그다음에 내 생각에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적으셔야 돼요.

이지혜 : 나를 찾아보기로 한 거는 나영 선생님이 나를 찾는 게 좋았으니까 나누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찾았던 나는 뭐지? 나는 나를 어떻게 찾았지? 그리고 나는 나를 찾았니까 뭐가 좋았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탄탄하게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게 분명하게 답변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다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는 생각이 끝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거울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 나에게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는 건 좋은 거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기획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 기획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냥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좋다고 하는 걸로는 사실은 이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크리틱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필요한데 그게 답변이 여기에는 이제 느낄 수 없어서 좀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3

김지수 : 사는 게 여유가 없다 보니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여기저기서 드는 순간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단어나 이런 것들 키워드나 사전적 의미를 꼭 한 번씩 찾아보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낭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이지혜 : 낭만이 뭐죠?

김지수 : 사전적인 정의도 있지만, 침착맨 유튜브에 김풍 작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좋으니까 그냥 낭만이란 그런 거다. 이 말도 저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놨었고, 그렇다면 영등포구 내에 가장 낭만이 있는 곳은 어디고 가장 낭만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었어요.

확실히 낭만을 좀 즐기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심리학 실험 중에서도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뭔가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비교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급한 위급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비우지 않는

현대인, 비우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현대인? 여유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을 때 그 낭만이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유에서 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서 무언가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공연이 됐든 그것은 그냥 구체적인 공연이 될 것 같고요. 그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지, 그 낭만의 공간을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낭만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세분화시켜야 되고 뭐랄까 범위를 좀 좁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낭만 중에서도 어떤 낭만을 내가 선택을 해서 친구와의 낭만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낭만일 수도 있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좁힐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제가 평소에 가족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공연을 했다 보니까 가족 간의 여유에 대해 생각한 것 같아요. 일하느라 바쁘시고 아이들과 시간을 지내기가 보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공연을 하게 된다면 재미있는 기획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아람 : 본인에게 낭만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가 혹시 있었나요?

김지수 : 학교 다닐 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보니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또 낭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공연과다 보니까 계속 공연을 만들고 공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배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애들이 페이나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해주고 우리도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전공 애들이 와가지고 가야금 해주고 해금 쳐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낭만적이죠. 밤새서 피곤하더라도 또 쉬는 시간에는 실용음악과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서 좋네 하고 또 다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이었던 저희한테는 좀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아람 : 지금도 공연 기획을 계속하고 계시는 데 뭐가 다를까요?

김지수 :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게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동료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 남는 시간에 공연 제작을 들어가야 되고 공간을 빌리는 것도 그 시간도 전부가 다 돈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퀄리티는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에 쫓기고 시간이 없다 보니 계속 퀄리티는 낮아지고 타협하게 돼서 애매한 공연이 나오는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낭만이 없는 것 같죠.

권지연 : 낭만이랑 돈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돈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김지수 :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려면 우선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가영 : 돈이 없다고 해서 낭만을 즐길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좀 들으면서 저도 사실 요즘에 이제 느끼는 포인트거든요. 여유가 없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삶에 약간 여백 같은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백이 없으니까 너무 막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막 현실에 치어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딱 선생님이 얘기한 포인트가 딱 저도 느끼고 있는. 요즘에 이제 한 제가 보면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30대 후반부터 40대는 너무 치열하니까 항상 되게 조금하고 다급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이걸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차원적으로 꽂혀있고.

가족과의 낭만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최근에 갔던 축제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는 우선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텐트에 앉아서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가 뭘 하는지 보고 음식도 이렇게 사 먹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보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족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뭔가 우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느껴지는 핸드폰이라든지 SNS라든 이런 걸 다 강제로 차단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주변의 풍경이 보이고 내 아이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여유일 수 있겠다.

여유가 있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여백이 좀 없는 느낌이다. 뭔가 비우는 게 두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비우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사실 책임이나 역할이 지금 많은 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잠시 오프를 하는 시간으로라도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너무 막 모든 것들을 동시에 막 하려고 해서 핸드폰도 봐야 되고 막 기사 검색도 해보고 싶고 막 재테크도 보고 싶고 또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막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이거를 온을 다 시켜놓으니까 정작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이렇게 강제로 오프를 하고 아이랑 주변이랑 이렇게 새로운 환경만 딱 온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권지연 : 그럼 지수님은 지금 현재 낭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난 낭만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대를 작업하시고 어쨌든 다른 생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충분한 낭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는분께서 낭만을 얘기하니까 저 사람의 낭만은 도대체 어떤 깊이가 있고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지혜 : 잔인하게 말하면 아예 할 수 없죠. 사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로 가닿을 수가 없고 그런 행위를 원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낭만이 있는 느낌. 가영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는 좀 반대 급부인데 저는 오히려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에너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활동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막 우울한 상태여도 아니면 낭만이 없고 되게 야박한 상태여도 그걸 막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같은 것 이런 기쁨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그런 어떤 단어들이나 감각 같은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넣고 뭔가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사실은 시간적 여유든 뭐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지수 쌤 얘기하실 때 제가 요즘에 작가들이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하려고 하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나면 진짜 똥통에 빠뜨려 놔는데 작업한다고 기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바랄 수 없잖아요. 모두에게 바랄 수 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상태 아니면은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로 이 낭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래서 이 공연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이 머리에 있다면 그거를 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진도 나가는 데 좀 좋을 것 같고요.

김지수 : 그게 없어요.

이지혜 :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지수 씨가 그냥 당기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욕구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재단에서 하는 거라 그럴까요?

김지수 :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지혜 : 우리가 이제 기획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사실 이런 건 다 내용이잖아요. 낭만이건 소문의 진상이건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기획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연을 올린다, 아님 어떤 전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만 기획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획이라는 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송 씨가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어나 말로나 행동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느껴져요. 근데 제가 해송 씨한테 제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사실은 어떤 기획의 방향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어떤 걸 놓기보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나쁜 기획이 되게 많아요. 나쁜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공평하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세상이 굴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만의 기획이

있겠죠. 그런 거를 보통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 살짝 비춰졌을 때, 이제 소문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지혜 :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씨가 학교에서 배운 어떤 프레임 그리고 학교에서 한 어떤 기획이라는 구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전적 정의를 뽑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해야지만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시간도 맞춰야지만 공간을 빌릴 수 있고 공간을 빌리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무게감이. 뭔가 되게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겨냥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사회 탓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게 기획자로서는 가장 안 좋은 적이죠. 자기의 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유연해질까 혹은 객관화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떠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친구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친구는 불행수집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행을 가족 옆에 계속 두면 자꾸 불행한 것 같은데, 내가 이 가족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박제하는 거죠. 목재 인형 같은 거에다 불운을 넣어놓는 방식으로. 이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 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 도자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요. 걱정인형 같은 거죠. 우리 집안의 불행 같은 거를 어떤 조형물을 만들면서 여기에 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비슷한 게 블랙독이 있거든요. 블랙독이 우울의 심리를 블랙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나면, 나 우울해라고 하면 그 우울함은 전 지구 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 감싸는 어떤 공기, 아니면 분위기, 사람들 눈빛 이런 것들은 영역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고 근데 이거를 블랙독이라고 예상을 해버리면 그 블랙독한테 기다려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그런 형태로 치환했을 때, 내가 개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조절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물질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연 준비를 해 근데 내가 지연 쌤 말 듣고 나도 조절해 봐야지 해서 막 바쁘다가 그래 나는 물 한잔 마시는 게 내 여유야 해서 이제 그런 여유 수행을 좀 했어요? 조그만 데다가 조금씩 적어 그래서 그 적은 걸 그냥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유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멍 때리기 대회도 말씀하셨지만 멍 때리기대회도 마찬가지로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요가매트 피고 가만히 사람을 앉혀놓는 어떤 거에서 갑자기 또 심박수도 재고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여유에 대한 자기 철학을 계속 붙이게 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은 하는데, 구현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멍때리기 대회 정도는 있을 것 같잖아요. 어디에나. 그건 다 모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획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은 그것들이 계속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약간 이제 점점 붙여지면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스타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멍 때리기 대회를 우리 이아람 작가가님이 하셨으면은 저는 완전 달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달랠고 그리고 그 작품의 수명, 그 작품의 프레젠테이션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작품이 가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하찮고 아주 작은 것부터도 괜찮고, 우리는 좀 결흔도 하고 애도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무게감을 더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럼 진짜 괴롭죠. 그러니까 그 무게감을 아는데 더 큰 무게감에서 반대급부가 나올 때 탄력 같은 게 더 강하겠죠.

4

한명주: 제가 기뻐하는 거는 너무 서툴렀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저는 억지로 뽑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배우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걸 얻어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 만약에 그게 갖춰진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해서 괜찮다고 하시면은 마무리 단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지금 되게 위험 부담이 되게 많아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지혜: 완벽주의자와 이야기하는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완벽해지는 기준이 될까요?

한명주: 제 만족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 사실 지금 뚜렷해지지 않고 뭔가는 있는데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자리는 그게 만나오니까 어렵잖아요. 전의 성격이었으면 30대였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고 처음에 딱 첫날 왔을 때 어떤 걸 보고 판단하고 아마 하거나 안했을 거예요. 많이 성격이 유연해져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나이가 어느정도 있다보니까 이제 나만의 약간의 여유와 좀 어떻게 보면 뻔뻔함? 다른 뻔뻔함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다가설려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내 일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건 미팅했을 때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오케이 아니면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못할 일을 안 했을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양성 프로그램 같은 건 제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좀 안 했던 걸 시도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지혜: 화학을 하신 분이 꽃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찾아서 또 오세요. 그래서 저는 명주쌤이 그렇게 딱딱한 어떤 쇠파이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근데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완성도나 어떤 그런 딱딱함을, 내가 되게 높은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명주: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지혜: 그럼 그 가치는 뭘까요?

한명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보면 그 시간에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값어치를 다르게 매기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배울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저는 준비가 안 돼있는 상황인 거죠.

이지혜 : 저는 대화를 하면 시각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게이트가 엄청 많은 사람인거예요. 그게 아마 강철이고, 그게 아마 완성도에 대한 추구겠죠. 게이트가 엄청 많은데, 그 게이트가 딱딱한 게이트는 아닌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 문을 지난 에너지 같은 게, 몸에 되게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어떤 게이트를 지나와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시느라고 그다음 스텝을 밟는 거에 있어서 진입이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한명주 :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고, 하지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해보고 있는거고요. 물론 되게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 보신 거예요. 없진 않은데, 잘 쓰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책임을 지는 일도 해봤고, 몸에 맞지 않았지만 해야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되게 편한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에 와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뭘 하려고 기획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밀어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막 억지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계속했는데 뭔가 저도 되게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나중에는 뭔가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권지연 : 근데 선생님께서는 책임이란 단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그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도 저희가 낼 것도 없고 담보도 이미 마련돼 있고 어쨌거나 저는 오히려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되든 안 되든 해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지혜 : 그러면은 오히려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제일 못하는 거를 제일 못해보는 건 어때요? 주제에 안맞아도 되고요. 아까 명주쌤이 나는 내 가치 때문에 나는 못해, 그리고 내 가치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건 그 기준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라는 궁금이 생겨요. 항상 자기만의 답이 확실해야하니까.

한명주 :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잘 타고 싶은데, 탈려면 잘 타야죠. 탈려면 끝까지 하고, 제대로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안하는 건 아예 쳐다도 안보고, 못하는 건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이면 민망해서 난 안할래 라고 했을 거예요. 관심은 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유해져가지고.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세 가족이에요. 둘은 자전거를 되게 잘 타기 때문에 둘은 먼저 가고 나도 나혼자서 즐기면서 가고싶은데 잘 못하니까.. 세 발 자전거를 살까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왜 타냐고 입대는 사람도 많고.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는.

이지혜 : 자전거를 진짜 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났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장미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미 줄기가 되게 뻑뻑하잖아요. 나무 같잖아요. 장미 줄기가 근데 그런 걸로 자전거 만들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명주 : 운동 신경에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금 나이가 제가 오십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 뜯어 말려요. 그러다가 이제 다치면 이제 회복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간섭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지혜 : 위생과 안전과 효용과 그 효율성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예술적인 걸 되게 가로막는 요소고, 무게감이 거기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한명주 : 제가 좀 시도는 해봤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해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나는 그냥 내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피크닉을 가고 싶고 이렇게 바람 느끼면서 지금 자연을 느끼면서 그 길을 남편과 아이가 둘만 가는 그 길에 저도 한번 가고 싶고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이지혜 : 제가 공감하는 게 제가 차를 정말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동이 너무 멀고 그래서 차를 많이 타는데 항상 저는 문을 다 열어놓고 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항상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자연이랑 연결돼서 움직이고 싶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반 일리치의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적정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적정 기술 이상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몸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항상 동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력을 쓰지 않고 이동하는 건 약간 존재에 대한 배반 같은 거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명주쌤한테. 지금 명주쌤이 내가 자전거 얘기를 왜했지? 자전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 못하는 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 근거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거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 뇌에서 생각해서 나온 게 사실은 진짜인데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유연한 방법을 찾는 걸 거기에 두면 좀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 집중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판단하려하지 말고 집중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소문의 진상’은 영등포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 술술에서 진행한 이웃문화대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를 공모하고 선정된 분들과 함께 4개월 간의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소문의 진상’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 과정은 지역의 언어를 추출해 번역과 오역 그리고 다시 퍼트리는 행위를 해보려는 자리였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왜 문화매개자가 되어야 하지?’라는 질문으로, 더 나아가 ‘나는 왜 매개하고 싶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문을 찾으려고 하니 소문을 만들어내야 하기도 했고,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매개자로서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이들과의 약속, 공공적 효과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 스스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 번갯불에 콩 굽듯 대중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서 오는 회의감 등은 자신의 결핍이나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없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은 자신의 시간을 시스템이나 약속에 얽매어 낭비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소문을 만들거나 진상을 밝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외부 어느 곳에 핑계를 두어야 했던 시간은 나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카를로 로벨리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의 한 구절이자 ‘소문의 진상’ 마무리 전시의 제목인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활의 시간과 예술의 시간을 분리하여 내 몸이라는 우주에서 흐르게 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아무리 지쳐 있어도 나를 꿇게 만드는 만남이 오면 시간을 분절하기도 하고 틈새를 만들기도 하면서 해냈습니다. 그것에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느냐의 문제도 아니었고, 진정성을 따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김나영은 자신에게 낯설었던 예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이 정복하지 못했던 모차르트 소나타 3번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한은 빠르게 변화가는 신길동이 낯설고 옛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지역의 노인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은 불편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는 고민하다 골목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고양이 시선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김지수는 점점 희미해지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아쉬웠습니다. 낭만에 대해 생각했지만 영등포라는 지역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영등포 시장에서 녹음한 소음과 자신의 발자국을 남긴 LP판을 전시장에 놓기로 했습니다.

이가영은 동네 텃밭을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돌려주던 고마운 텃밭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텃밭의 사용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을 연인과 헤어지는데 비유해 봤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지연은 전시장 내에서 점토로 향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원의 의미라고 합니다.

전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향로에는 어떤 시간이 담기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우주와 우리의 상호작용이 특별하게 만든 우리의 시간을 소박하게 떼어내 전시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한 다섯 명의 시간이 이달 14일부터 영등포구 경인로 790 '공간투'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작업 소개





❶ 김나영 '나의 노래, 나의 모차르트' (단체널 비디오, 사운드, 5')

나는 왜 모차르트를 연주하려 하는가? 나는 나만의 음악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 나의 욕망은 지금까지 계속 나를 피아노 앞으로 끌고 왔고, 그 여정 중에 모차르트를 동경하고 갈망하며 그의 음악을 노래해 보려 한다.



❷ 이가영 '길들임' (단체널 비디오, 사운드, 10'39")

올해 나를 길들인 것은 무엇이였을까? 기꺼이 시간을 내고 품을 들여 이룬 것이 있었나? 시행착오의 반복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복을 느껴 본 적 있나? 내게는 문래 텃밭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텃밭에서 흙을 갈고 계절 야채를 심고 물을 주며 자라는 과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채취한 작물로 요리를 만들며 행복을 체득한 시간이었다. 문래 텃밭에서 보낸 시간을 추억으로만 남기기 아쉬워 여기에 기록하기로 했다.

3

아련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른다

4





③ 최경한 '골목길' (다채널 비디오, 사운드, 4'30")

낡은 슬리퍼를 끌며 골목길을 걷다 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슬래잡기를 하거나 팽이를 돌리며 뛰어다니던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이 생생하다. 어느새 낡은 담벼락 대신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좁은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신길동 골목 곳곳에는 변화 속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신길동은 사는 동네를 넘어 나의 삶의 일부이며 지금-여기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느낀다.

④ 김지수 '발자국' (가변설치, 사운드, 4'03")

영등포시장 지하상가의 혼란스러움을 레코드판과 발자국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야광물감과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그 과정을 시각화했다.



❶ 권지연 '영등포문래소항로' (가변설치)

영등포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안녕, 살아가고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안녕

전시 오프닝





에필로그

발화

소문의 진상의 첫 기획에 마지막 글은 -자신이 자고 먹고 놀고 일하는 삶의 장소에서 '삶이 사건이 되는 순간'을 목도하는 목격자-로 설명한다. 소문의 진상 참여자의 삶은 스스로 읽고 번역하는 시민으로서의 첫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내적 동기로부터 시작하는 소문의 발화점은 찾기엔 산이 많았고 어쩔 땐 미리 제안하는 방식의 예시를 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의 발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신체의 움직임, 지리적 이해, 감상적, 이성적 태도에 자기고민을 기반으로 한 자기 결정이 조율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각기 다른 예술로 지역을 이해하는 두 명의 예술가의 특장을 통해 어떻게 문화와 예술이 지역에서 활동 되는가에 대한 예술가적 입장에서 그 태도를 엿보기도 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 대림동, 여의도동을 방문하여 각기 다른 삶의 풍경을 살고 있는 풍경과 그 생활패턴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중반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개인의 관심사에 기반한 소문을 위한 진상眞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여자는 소문과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나의 이야기에 대한 진상眞相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나와의 첫 대면을 마주해야 했다. 이웃문화대사는 과거의 나에서 현재의 나로 오는 과정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발화되어야 그 소문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것

영등포의 소문과 나를 이야기하는 연결의 시도에 우리는 한 해 여름 지난한 시간을 보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 혹은 냄새, 촉각, 기억, 상상력, 설화, 혐오, 환상, 기사와 사건이 결합 된 소문을 찾다가 나를 먼저 이야기하라는 태도는 참여자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영등포 곳곳에서 서로 다른 직업과 일상을 살고 있는 참여자들은 귀차니즘과 무시와 결눈질, 거부, 때로는 하소연과 먹먹함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창작에 대한 어려움, 일정한 목적성의 한계와 그 부딪침은 계속해서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참여자들은 '뭔가 있었다'라는 증명의 발현을 시도했고 그 '뭔가'는 자주 사라지고 없어지고 잘리고 해체되었다가 환형처럼 나타나기도 했다. 참여자들이 찾은 소문은 '영등포에 산이 있었다.', '영등포는 민간신앙의 성지이다.'와 같은 뜬소문들이었고 그 진상을 파악하거나 진득하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니 '왜 이 소문이야?'라는 질문에 무게가 실리고 그 질문을 넘어 '당신은 왜 기획이 하고 싶었나요?'라는 질문으로 향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동기성을 획득해야 비로소 영등포에서 '소문의 진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씨

나는 소문의 진상이 끝난 이후에도 잔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으로 얇고 긴 소문을 이어가길 바란다. 참여자들이 계속 지니고 있던 불평과 불만, 자기고백의 두려움, 어물쩍거리는 움직임만이라도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용기와 대면에 소문이 있음을, 직접 행동하고 표현되는 것에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밀거나 당기거나, 재촉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각자의 참여자는 자신만의 시간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물리적인 시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뿐이다. 그래서 소문의

진상에서 진행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의 전시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의 불씨를 직접 피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다.

이가영은 문래동에서 24년에 진행한 도시 텃밭에 당첨이 되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일구었던 텃밭과 이제 이별하기로 한다. 하지만 헤어짐에 담담하지 못한 기록물은 한없이 애정답다. 그녀의 텃밭을 기록한 많은 영상에서는 계약이 끝나도 점거하여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았다. 내년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인물이 일구게 될 텃밭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 흙과 농작물은 또 어떻게 바뀔까. 헤어진 텃밭을 추후 방문하여 어떤 마음으로 떠나게 될 것인지 다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녀의 움직임이 궁금하다.

최경한은 사람보다는 공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일생을 마주했던 담벼락에 더 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신길동의 좁은 골목길을 느릿느릿 다니며 쭈뼛쭈뼛한 태도로 자신의 일평생 추억을 간직한 동네에서 현재의 걷기를 중점으로 한 영상 작업은 그가 진솔하게 동네와 대화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곧 동네는 그에게 하는 인사이고 안부이다. 매 시간 그가 이야기하는 귀차니즘과 졸림, 대화의 어려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단막극 같은 어릴 적 회상은 동네의 골목과 많이 닮아있다.

김나영은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럼에도 아이에게도 소홀하지 않는 좋은 엄마가 되려는 사람이다. 일과 육아의 사이를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그녀의 고됨에도 카랑카랑한 웃음으로 관촬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애증의 곡, 초연, 창작, 약속, 결실, 안정과 그에 따른 행적을 따라가며 자기 자존감을 찾고 가족 안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기억을 담은 과정이 영상에 담겨있다. 긴 시간 기록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앞으로 그녀가 하고 싶었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영등포에서 대화하고 작동시킬 수 있을지 그 밑도가 궁금해진다.

김지수는 잃어버린 낭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그 낭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김지수에게 낭만이란 무엇인가. 열정, 바쁨, 딜레마 속에 찾고 싶은 낭만의 형태가 꼭 마음의 여유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일은 해야 하고 일에서 얻는 공연기획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꿈과 그 속에서 찾는 나의 여유는 늘 상충되어 있어 보였다. 그렇게 낭만은 곧 상실, 위치와 방향감각의 혼돈으로 흘러들어가 영등포 지하상가까지 이어졌다. 그곳에서 겪었던 그녀의 감각의 경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지수의 소문의 진상은 바쁜 시기에 만들어 내야하는 나의 소문이었기에 감각의 경험이 단순화되는 아쉬움을 준다. 그 작업을 바라보는 나는 신체를 통한 감각 회로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녀의 일터에서도 축적되어 이야기될 수 있길 바란다.

권지연은 영등포의 설화에 관심이 많았다. 설화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왜 이것을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부모님과 아이를 돌보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과정 중에 별세하신 시아버지의 장을 치르고 그녀는 향로를 만들기로 했다. 향을 피우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감사함과 앞으로 가족들이 살아갈 지역에 대한 안녕을 빌었다.

인류가 끊임없이 논쟁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에 각기 다른 이야기가 변형되고 합쳐져 구전되는 ‘너 그 얘기 들어봤어?’와 같이 위의 참여자들의 소문의 진상이 시작이라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만남에서 지나간 중간하차의 참여자도 소문의 중단이 마냥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시작 선에서 다른 속도로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중일 것이다. 때문에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소문으로 모일 것이다.

밀도

우리가 활동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려면 시대의 분위기와 사회의 이슈가 나에게 어떤 삶을 제공하는지 계속된 질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회와 조율하는 과정을 겪어야 고유성을 가진 시민, 이웃문화대사가 된다. 김월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의 태도가 어떻게 영등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필요하다. 고민의 끈을 놓지 말자. 고민의 파티가 시작되었기에 그 밀도는 스스로 번역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소문의 진상에서 확인했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영등포의 하루의 무늬를 찾는 ‘소문의 진상’이라 생각한다. “얇은 레이어를 지속해서 쌓아야 밀도는 더욱 단단해져요.” 읍쓰양이 특강에서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하루가 지나 일주일, 한 달의 무늬로 모여 하나의 고유한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자원이 되길 바란다. 어떤 일도, 청소도 육아도, 걷는 순간에도 자신과 동떨어진 소문을 만들 수 없으며 동네를 읽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프로젝트에 거쳐 간 참여자들의 선택과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동행자 이아람

2024년 YDP크리에이터 이웃문화대사 양성 과정

소문의 진상

참여자	김나영 김지수 권지영 이가영 정미환 최경한 한명주	동행자	이아람, 이지혜
		특강	김월식, 윽쓰양
		기획·진행	문화매개실천연구소
		매개자	지가영
		사업담당	김해송
		주최·주관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문화도시센터

펴낸날 2024년 12월

펴낸곳 영등포문화도시센터

주소 (0729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3길 15 술술센터

전화 02-2634-2240

인스타그램 @cultural_city_ydp

홈페이지 <https://ccydp.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lorful_ydp

©영등포문화도시센터

본 자료집은 2024년 문화도시 영등포 YDP크리에이터 이웃문화대사 양성 과정 <소문의 진상>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영등포문화도시센터, 영등포문화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도시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 걸음표



TO THE CULTURE CITY
YEONG DEUNG PO